2023년
1월 15일
제 75 호

MBC 사우회보
mbcsau.com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 발행처: (사)문화방송사우회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 TEL: 02-722-7416 ●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인: 장명호 ● 편집장: 김상옥

〈신년사〉

사우회 역할에 충실할 터

존경하는 사우회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검은 토끼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문화방송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눈에 띄는 일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 조사에서 2013년 최초 조사 이후 10년 만에 1위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경영 실적도 잠정 추정치로 8백억이 넘는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에 기분 좋은 뉴스를 회원님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지난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장에서 석남수 회원께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석 회원님은 6차례나 발전기금을 주셔서 그 고마움의 뜻을 담아 드렸습니다. 몇 개월 전 주헌일(보도) 선배로부터 '전에 상사로 모셨던 문숙영 선배의 근황과 전화번호를 좀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따님 전화번호와 '지금 요양원에 계시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도 함께 알려 드렸는데 얼마 후 문 선배님의 따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4천만원이 입금됐는데 무슨 일이냐"는 것입니다. 주 선배에게 확인하니 '고향의 땅 판 돈으로 고마운 분들께 뜻을 전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MBC라는 플랫폼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한때는 라디오, TV, 신문 등 '전통 미디어'가 2세대 플랫폼 자리를 굳게 지켜왔는데 지금은 구글, 아마존, 애플, 네이버 등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우회는 플랫폼 중간 단계에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한 세대가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1세대와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했던 2세대 플랫폼을 지나오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3세대 플랫폼의 기계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저에겐 많이 생소합니다. MBC라는 플랫폼에서 만나고 헤어진 수많은 기억들을 연결시키는데 사우회가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움추렸던 토끼가 강인한 뒷발로 힘차게 도약한다는 계묘년에 여러분 가정 모두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화방송 사우회 회장 장명호

콘텐츠 르네상스의 기반 완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MBC 가족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우리의 소중한 일터 문화방송에도 창의성과 활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MBC의 2022년'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미디어 환경에서 힘겨운 파고를 넘어야 했습니다. MBC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도전도 큰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우리는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MBC의 2023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혁신을 계속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선은 드넓은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되 두 발은 공영성 위에 굳건히 둘 것입니다. 그것이 공영방송 MBC의 숙명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고민하는 TF가 만들어졌고,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그로 인한 공동체 위기 극복'을 올해 MBC가 국민들께 제시할 첫 번째 의제로 결정했습니다. 이 의제를 강력한 콘텐츠로 만들어 내기 위해 MBC의 저널리즘 역량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 내지 않더라도 수많은 관점을 포용하고 논점을 짚어내서 뜨거운 공론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MBC가 만들어 가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MBC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들과의 경쟁, 정체성을 흔드는 파도 그 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함은 날카로운 창이요, 시청자의 신뢰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국민과 시청자만 믿고 간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버티는 강한 MBC가 될 것입니다.

MBC 가족 여러분, 2023년은 굳건한 공영방송의 틀 안에서 콘텐츠 르네상스의 기반을 완성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방송 사장 박성제

2022 송년의 밤,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려

12월 8일 오후 5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354명의 사우회원들과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11명의 MBC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MBC사우회 송년의 밤' 이 열렸다. 회원들은 식전 행사로 입구에 마련한 포토존에서 앞다퉈 기념사진을 찍으며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비발디의 4계' 중 여름 편 3악장의 경쾌한 연주와 영상이 장내에 울려 퍼지며 축제 분위기의 막이 올랐고 고창근(ANN) 회원의 사회로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묵념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코로나 방역관계로 사가社歌 제창이 생략된 대신 최근 MBC가 편곡한 국악버전의 새로운 사가 연주 영상이 선을 보였다.

장명호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년 만의 모임이라 더욱 반갑다"고 말하며 먼저 사우회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어 MBC가 올해 이룩한 성과를 치하하고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MBC 임직원들과 영상 제작을 위해 애쓴 박승규, 박진석 두 회원들께 감사한다'며 "MBC가 '영광의 선두주자'임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선배들이 후배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제 사장은 축사를 통해 "선배님들이 땀흘려 이룩해놓은 MBC는 현재 뉴스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타 방송사를 압도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한 뒤 "선배님들이 믿어주시는 한 MBC의 발전과 성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장 회장은 6회에 걸쳐 발전기금을 기탁한 석남수(기술)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대한언론인협회 박기병 회장과 강성구 전 사장이 건배제의를 했다. 이어 그동안 사우회가 걸어 온 발자취를 요약한 영상이 펼쳐졌고 신입회원과 소모임 회장단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다. 'MBC와 나'라는 코너에서는 방송 현장에서 활동했던 기자, PD, ANN, 기술, 카메라 기자, 탤런트, 가수, 분장담당, 의상담당 등의 인터뷰가 소개됐고 MBC가 창사 61주년을 맞아 제작한 홍보영상도 함께 감상했다.

사우회 만을 위한 품격있는 상차림으로 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눈 회원들의 반가운 만남은 두 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7시 30분경, 송년의 밤을 위해 사우회가 마련한 기념품(대전 성심당의 명물 소보로빵)과 2023년 MBC 다이어리, 정길화(편제) 회원이 기증한 불루투스 이어폰 등을 받은 회원들은 내년 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귀갓길에 올랐다.

회/원/동/정

▶박기병(관리)
'육군' 11월호에 '전쟁의 교훈을 전하는 참전언론인' 인터뷰가 게재됐다. 6,25때 학도병으로 입대한 박 회원은 화랑무공훈장 등 많은 표창을 받았다.

▶황인뢰(편제)
자신이 연출한 연극 『미저리』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2월 5일까지 공연한다. '스릴러' 위주의 원작보다 짝사랑 여주인공의 내면 표현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분들(11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심규성(관리) 100만원
▶고규군(기술) 60만원
▶석남수(기술) 30만원〈7회〉
▶김만섭(기술) 30만원
▶故김경준(전주) 30만원
▶윤종선(기술) 20만원
▶김영만(관리) 20만원
▶손진우(편제) 20만원〈2회〉
▶장두문(편제) 20만원
▶김연두(관리) 20만원
▶이웅재(관리) 10만원
▶권선장(관리) 10만원
▶조기양(보도) 10만원
▶김호준(보도) 10만원
▶우종범(편제) 10만원〈2회〉
▶이해성(보도) 10만원
▶김재철(보도) 10만원
▶이성호(편제) 10만원〈2회〉
▶이영생(관리) 10만원〈2회〉
▶정 진(보도) 10만원〈4회〉

심규성

고규군

석남수

김만섭

故김경준

윤종선

김영만

손진우

장두문

김연두

이웅재

권선장

조기양

김호준

우종범

이해성

김재철

이성호

이영생

정 진

경조사항

구순: 박태환(관리) 34.1.21

팔순: 이봉천(편제) 44.1.29 이중구(관리) 44.1.30 이용구(업무) 44.2.1
권태규(대구) 44.2.15 윤호찬(보도) 44.2.19 남궁옥인(기술) 44.2.20
배종두(기술) 44.2.28 양홍열(기술) 44.3.13 홍이표(관리) 44.3.13

고희: 서정훈(보도) 54.1.16 오양수(관리) 54.1.16 한병우(보도) 54.1.18
최운형(ANN) 54.1.22 김영금(관리) 54.1.24 홍용선(관리) 54.1.26
김영한(관리) 54.1.28 서은선(ANN) 54.1.29 하재영(편제) 54.2.3
이수관(관리) 54.2.5 신기준(기술) 54.2.6 조형철(관리) 54.2.8
김영성(기술) 54.2.26 안주희(ANN) 54.3.13

회갑: 지윤태(보도) 63.2.12 이규리(ANN) 63.3.9 김형구(편제) 63.3.15

결혼: 박규식(보도) 딸 12/17

부음: 안호명(편제) 장인상 11/13 윤종선(기술) 모친상 11/23
송재익(ANN) 배우자상 12/10 선병조(편제) 장모상 12/12
정경태(관리) 배우자상 12/22 조기양(보도) 장인상 12/22
이용재(관리) 배우자상 12/24 권영화(기술) 장모상 12/25
이효일(업무) 모친상 12/29 신준동(관리) 장인상 1/2
오원섭(관리) 부친상 1/3

연회비

평생회비 : 김풍철 김완중 유세준
2021년 : 심규성
2022년 : 양영욱 권윤성 이재원 박경삼 이명숙 강철호 김광용 이중구 이형균 이승재 송기남 강유현 강효복
2023년 : 김승수 홍순흥 진경현 방영희 조규보 권황택
2024년 : 진성수, 노형식, 홍성기
2025년 : 권상규 2027년 : 이명자

주소 변경 / 신규

편제 : 염영수 경기 여주시 금사면 금사로 (전북리)
김세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13 (금호리첸시아)
이은규 서울 마포구 삼개로 38 (우성아파트)
김완중 서울 용산구 이촌로 114 (베론리버빌)

보도: 오태돈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170번길
이용우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12번길 22

ANN: 방남순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가길 30(사당동)
이형균 경기 오산시 남부대로 411-15 (푸르지오)

기술: 김순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0(삼성2차아파트)
문장환 강원 원주시 단관공원길 111(중앙하이츠)

관리: 김풍철 서울 성동구 행당로 79 (대림아파트)
유세준 서울 성북구 숭인로2길 61(동부센트레빌)
양영욱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한양아파트)
정 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326번길3 (오션테라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金景俊(전주)
2021년 12월 18일 별세(부음을 늦게 전달받음) 향년 83세. 1963년 ANN 입사. 전주MBC 상무이사 등.

廉在用(전주)
12월 9일 별세. 향년 85세. 1965년 전주MBC 기술국 입사. 기술국장 등. 1995년 퇴사.

朴海宣(대구)
12월 11일 별세. 향년 80세. 1968년 대구MBC 총무부 입사. 1998년 퇴직.

全貞翼(관리)
12월 23일 별세. 향년 82세. 1971년 총무국 입사. 수송부, 시설부 근무. 1998년 퇴직.

宋世源(업무)
11월 27일 별세. 향년 82세. 1969년 입사. 광고국 부국장, 사업국 위원 등. 1998년 퇴사.

石鐘現(관리)
12월 10일 별세. 향년 84세. 1982년 입사. 인력개발부장, 홍보국 위원 등. 1996년 퇴사.

朴秀明(편제)
12월 17일 별세. 향년 83세. 1969년 미술부 입사. MBC 미술센터 상무 역임. 1992년 퇴사.

金洛賢(관리)
1월 5일 별세. 향년 63세. 1986년 입사. 경인지사 등 근무. 2015년 퇴사. 동화인협동조합 이사장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김풍철(관리)
1985년 총무국 입사. 기획실, 경영관리국, 감사국 등 근무. 2018년 퇴사.

유세준(관리)
1988년 총무국 입사.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근무. 2022년 정년퇴직.

김완중(편제)
1990년 TV제작국 입사. 미술부 분장팀, MBC아트 미술팀 국장. 2019년 퇴사.

5명의 대통령 따귀를 두들긴 남자

김 완 중(편재)

'분장계의 전설'박수명 선배님께서 12월 17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까마득한 후배로서 감히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선배님에 대한 추모기를 써달라는 편집자의 요청에 따라 몇몇 자료를 참고로 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그분의 생전의 면모를 조심스럽게 더듬어 봅니다.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 '정치인 분장사' 1호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자상한 분이지만 분장에 관해서는 더없이 엄격한 스승이었던 고인은 용산고교 연극반을 거쳐 1958년 '국립극장 연극인 양성소'에서 연극 연출을 공부하며 분장에 처음 관심을 두었다. 1964년 KBS 무대과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방송 분장을 시작했고, 1969년 MBC로 이적해 1998년 미술센터 상무이사 임기를 마칠 때까지 수많은 드라마와 프로그램에서 분장을 맡았었다. 방송을 떠난 뒤에도 1998년에 만든 '바림분장연구소'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등 2000년대 초까지도 분장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1970년대 김용식 당시 외무부장관을 시작으로 헨리 키신저의 분장을 맡는 등 '정치인 분장사 1호'로 불리던 그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분장도 맡았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다섯 명의 대통령들 따귀를 두들긴 사람'이다.

이인제 씨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분위기가 나도록 분장해준 일화도 유명하다.

▶분장이론의 개척자

60년대 초 TV시대가 열렸지만 분장 분야는 그야말로 황무지였다. 의존할 교과서도 없고 참고할만한 국내 서적도 구하기 어려웠다. 분장용 물품도 수입품 일색이었고 수입이 어려우면 직접 만들어 쓸 수밖에 없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이 드라마 속의 인간이다. 주름살 하나라도 사실처럼 표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체 해부학의 지식도 있어야 했다. 근육의 구조, 골격의 형태, 피부 상태 등에 따라 주름살의 크기와 모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해가 없이 '솜씨'만으로는 제대로 된 분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의 지론은 "분장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작가나 연출자의 상상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개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꼴'로 형상화 시키는 작업이 분장이가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분장의 이론화 작업에도 앞장섰다. 국내에서 최초의 분장 이론서로 일컬어지는 '공연예술총서'(문예진흥원 발행) 중의 한 권인 '분장 편'이 그의 책임 집필로 이뤄진 것도 분장실무 뿐 아니라 분장이론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수분장의 효시

특수분장이란 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하는 분장을 말한다. 예컨대 상처에서 질펀하게 흐르는 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흔히 물엿에 식용색소를 섞어 쓰기도 하지만 '블러드페인트'라는 완제품 모조혈액을 사용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혹을 만들 때는 라텍스에 전구알로 형태를 떠서 붙이거나 스폰지막에 스타킹을 씌워서 살갗에 붙이기도 한다. 사마귀를 만드는 데는 둥글게 뭉친 껌에 '도랑'을 칠해서 쓰기도 하지만 플라스토라는 왁스류를 사용하기도 한다. 흉터는 콜로디온이라는 피부 굴절용 접착제를 바르지만 고무찰흙으로 얇은 막을 입혀 수공으로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특수분장 기법을 그는 많이 개발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덧붙이는 분장보다는 섬세한 표현이 더 어렵다'고 그는 늘 말하곤 했다.

특히 그가 고심했던 것은 사극 분장에서의 고증이었다. MBC에 고증 전문위원이 없다보니 혼자 책을 구해서 보기도 하고 외부 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시대에 따라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100퍼센트 사실 재현은 어려웠다. 또한 TV매체의 특성상 아무리 고증을 거쳐서 만들었어도 시청자들의 눈이나 고정관념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어색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왕비와 상궁들의 머리 모양을 최초로 고증을 거쳐 드라마에 정착시켰고, 1985년~86년에 방영된 '조선왕조 5백년-임진왜란 편'에서 일본 장수들의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식 상투인 '존마게'를 살펴보고 재료를 사와서 직접 만들기도 했다. 1981년 드라마 '제1공화국'에서 최불암을 이승만 대통령으로 바꾼 것이라든지 1986년 드라마 '생인손'에서 한애경의 얼굴을 10대 소녀에서 90대 노파로 바꾸는 등 그는 특수분장을 위해 온 몸을 던졌다.

▶웃음과 유머의 일상화

그는 SF소설 매니아다. 한때는 한국 UFO협회에도 가입했다. 그런가 하면 사주나 관상, 무당에 대한 관심도 만만치 않았다. 이른바 '신비성의 추구'라는 차원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직업이라서 더 그런지도 모른다. 사람의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기도 하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거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굴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20대부터 '웃는 얼굴'을 하기로 작정했고, 노년에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그의 '인상학' 내지 '운명철학'에 의하면 100명 중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퍼센트에 불과하고, 삶에 성공하는 사람은 결국 잘 웃는 그 15퍼센트더라는 것이다. 분장을 할 때 그의 입은 잠시도 쉴 새가 없다. 그것은 상대방의 어색함이나 쑥스러움을 풀어주려는 속 깊은 배려에서 나온 행동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인간성이 사람

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처음 보는 사람은 약간의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과감한 유머를 구사하는 편이다. 그의 숙달된 유머는 듣는 사람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순식간에 찬밀감을 불러온다.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도 그의 어린아이 같은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배시시 웃게 된다. 이것은 대단한 장점으로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효과는 더욱 빛났었고 그는 '인기 교수'의 대열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그가 남긴 당부의 말

"지금까지는 주로 회화적 방법, 평면을 활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분장을 해왔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성분의 분장 재료의 개발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HDTV, 고화질 TV 등 영상 기자재의 첨단화, 정밀화로 인해 미세한 부분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송제작 환경 변화로 그에 따른 분장전문가의 사고와 노력도 한층 새롭게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생전의 그는 후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다.

근래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영상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맞춰 구체적인 색조 연구와 분장 방법의 진보, 그리고 다양한 전용 화장품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살만 젊었어도 디지털시대에 맞는 분장법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고 싶다'고 아쉬워하던 박수명 선배님.

저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붙잡고 분장을 하시면서 쾌활하게 웃고 계실 것만 같다.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이제 새 역사의 시작을 기록해야겠다.”

이문노(보도)

“저희 비행기는 잠시 후 38선을 넘겠습니다. 아래로 백령도와 인당수, 장산곶이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13일 오전 9시 20분 서울공항을 이륙한 ‘남북정상회담 취재기자단’은 불과 26분 만에 38선을 넘어 서해안 북쪽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기내 방송을 들었다. 기자들이 창밖의 북녘 산하를 확인하려 술렁이기 시작했다. 맑은 하늘에 북한의 서쪽 바다와 육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38선 이북’이라는 기내 방송은 ‘아주 특별한 취재’에 초대된 우리들이 더 이상 감상에 젖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묘한 긴장과 함께 기자의 본능적인 행동이 시작됐다. 이곳저곳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질 않았고 텔레비전 합동취재단들도 창밖에 전개되는 북녘의 산천을 ENG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하늘에서 본 평양 교외의 농촌은 모내기가 한창이었다.

오전 10시 7분, 비행기는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 앉았다. ’평양 순안‘이라는 글씨가 파인더에 들어왔다. 비행기가 정지한 트랩 앞에는 취재 지원을 위해 선발대로 온 김성진 공보비서관과 취재 기자 안내를 담당할 북측 안내원들이 ’빨리 내려 이동하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서둘러 트랩을 내려와 간이로 설치된 검색대에서 카메라, 배터리 등 취재 장비를 검색 받고 곧바로 안내원이 붙었고 취재팀을 태운 미니버스는 1백여 미터 떨어진 활주로 옆 행사장으로 옮겨 우리를 내려놓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행사 전체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촬영대로 잽싸게 올라갔다. 4계단 알루미늄으로 세운 촬영대에서는 순안공항 환영행사 전경과 우리 대통령이 1호기에서 나와 트랩을 통해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 장면을 담을 수 있는 곳이었다.

촬영대 위에는 나 말고도 북한의 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15명 가량의 기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3층 계단 뒤에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돌연 뒤편에서 환성과 경쾌한 음악이 연주된다. 카메라를 돌려 환성의 진원지를 클로즈업했더니 눈에 익은 인물이 파인더를 가득 채웠다. 박수를 치며 등장하는 김정일 위원장이다. “위원장님 만세” “만세” 북한 주민들의 구호와 함성이 순안공항에 메아리쳤다. 내 곁에 있던 노동신문 기자는 김 위원장을 ‘4년 만에 가까이서 본다’며 감격해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공항에 김 대통령을 직접 환영 나온 것은 뜻밖이며 ‘이는 남북 정상 회담이 잘될 징후’라고 나름대로 해설을 해줬다.

얼마 후 1호기 기체의 문이 열리면서 김 대통령 내외분이 북녘의 산천과 마중 나온 동포들을 감회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 후 천천히 트랩을 내려왔다. 망원으로 당긴 카메라가 떨리기 시작했다. 두 다리에 힘을 주며 카메라를 가슴에 붙였다. 잠시 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 그 역사적 장면이 나의 렌즈로 들어왔다.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었다. 지난 반세기, 죽음과 절망의 역사에서 이제 생명과 희망의 역사로 전환되는 순간. 북한 동포들의 함성과 인민군 밴드의 연주가 소리를 높였고, 내 카메라는 대통령을 따라 인민군의 사열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선생, 빨리 무개차로 옮깁시다. 평양 시내 환영을 잡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안내원이 소리쳤다. 벤츠에서 만든 무개차는 10여 분만에 평양시 연못동으로 이동했다. 연못동은 김 대통령의 평양시민 환영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백화원 초대소 도착까지의 취재를 마치고 곧바로 고려호텔 2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로 달렸다. 위성을 쏘기 위해서였다. 브리핑룸 옆에 설치된 송출실에서는 이미 공항에서 근접 촬영된 다른 취재팀의 화면이 송출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OK라는 엔지니어의 말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텔레비전 영상의 위력이 55년 분단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정상 회담에 예정된 TV 카메라 기자 취재 인원은 8명이었지만 영상 취재는 최소 2인 1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4팀에 불과했다. 정상 회담 취재를 앞두고 8명의 카메라 기자들은 하나의 원칙을 정했다. ‘역사의 현장을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충실한 화면을 담자’는 것이었다. 과거 과잉 기록 표현된 일부 화면이 남북 화합에 큰 상처를 남겼음을 자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거리를 지나면서 오해를 일으킬 클로즈업 화면은 담지 않기로 했다. 한 컷의 화면이라도 회담 성사에 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모두기 취재 현장을 다녔다.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실행되었고, 모든 화면이 편집 없이 생방 형식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접하고 ‘참으로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뜻이 취재 안내를 한 안내원 선생들에게도 이심전심으로 전달되어 신뢰가 구축되었다. 그래서 6월 14일부터 차량 이동 중에 필요한 거리 스케치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할 수 있었다.

이번 정상 회담을 전하면서 만약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생한 육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다. 김 위원장의 육성이 그대로 방송됨으로써 김 위원장에 대한 인물 평가는 엄청난 파장을 그리며 극과 극을 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녹취를 위해 취재 현장에서는 남측과 북측 카메라 기자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회담 내내 끊이질 않았다. 북측에는 ENG 카메라보다 필름 카메라가 많았다. 회담이나 만찬 현장에서 북한 기자들이 양쪽에서 필름 카메라 셔터를 돌릴 때면 현장 오디오는 셔터의 소음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특히 단독 회담 전 정상 간에 잠시 공개했던 장면들은 이 따금씩 터지는 셔터 소음으로 우리 카메라 기자는 속만 태우다 나오곤 했다.

고려호텔에 마련된 기자실

안내를 담당했던 북측 안내원

그래서 14일 밤 11시 20분 백화원 초대소에서 있었던 서명식에서는 우리 측 경호원에게 협조를 구해 북측의 필름 카메라 기자를 빼고 남북 ENG 카메라 기자와 사진 기자만 취재하는 극적인 작전도 연출했다. 북한의 TV 뉴스 방송은 현장 육성 대신 아나운서가 원고를 내레이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의 셔터 소음은 회담장, 만찬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렸던 것이다.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평양 예술인들의 음악 무용 종합 공연’에서도 필름 카메라의 셔터는 요란했고, 심지어 14일 목란관에서 있었던 김 대통령의 만찬사도 현장의 소음 때문에 대통령의 육성이 명쾌하게 전파를 못 탔다.

대동강변에 위치한 옥류관은 풍광도 음식의 맛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냉면은 명성대로 부드러운 면발과 육수가 일품이었다. 평양냉면을 시식하고 계실 대통령 내외를 취재하기 위해 북측 경호원들을 설득해 어렵게 찾아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우리측 경호와 의전실의 만류로 냉면을 드시기 직전 방을 나와야 했다. 매우 안타까웠다.

6월 15일 역사적 남북 정상 회담 취재는 백화원 영빈관 오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손잡고 합창하는 두 정상과 수행원들의 모습을 담으며 다시 한번 절정을 이뤘다. 2박 3일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오후 4시 48분 쯤, “3분 뒤 저희 비행기는 38선을 통과합니다. 아래쪽으로 옹진반도가 펼쳐져 있습니다.”라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역사학자 강만길 교수는 “해방 이후 55년사의 엄청난 역사적 현장에 섰다”며 “대결의 역사를 화해의 역사로 돌려놓는 순간에 참여해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었다”고 감회를 토로했다. 기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역사적인 2박 3일. 새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해야겠다.

김승월 칼럼

손을 잡는 것은 마음을 잇는 것

김승월

●미소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그니스(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아시아 라디오 워크샵이 열렸을 때 MBC에서 30여 년 라디오PD로 일한 경험을 나눠드리러 간 적이 있다. 낯선 외국인과 있으려니 좀 부담스러웠는데 의외였다.

5박 6일 일정 내내 진행자는 물론 봉사자 대부분이 눈만 마주치면 웃어 주었다. 환한 미소를 대할 때마다 긴장감이 누그러졌지고 마음이 열리고 편해져서 나도 마주 웃어 주었다. 가르치러 갔다가 한 수 배우고 온 셈이다.

필리핀 사람더러 '어찌 그리 밝으냐'고 물었더니 '스페인 문화 영향 때문'이라고 답했다. 300여 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라틴족 특유의 쾌활함과 낙천성이 전해졌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연환경 때문이라고도 했다. 필리핀은 해마다 태풍이 스무 차례 이상 닥치고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하고 있어 지진도 일어난다. 태풍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었을까. 혹독한 자연 재앙이 되풀이 되다 보니 웬만한 불행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도 모르겠디. 그래선가. 필리핀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한국보다 훨씬 높다

워크샵 중 마닐라 대주교 타글래(Tagle) 추기경을 예방했다. 신학자로 이름난 분이다. 점심을 마칠 무렵 추기경이 식당에 들어섰는데 내 눈을 의심했다. 가슴에 건 커다란 십자가 빼고는 여느 사람 모습 그대로였다.

추기경 예복은 물론 진홍색 모자도 쓰지 않은 수수한 남방 차림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추기경의 미소. 30여 명의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미소 띤 얼굴로 악수하고 기념사진 촬영에 일일이 응해주었다.

나와 찍은 사진에서도 추기경은 오랜 친구처럼 환하게 웃었다. 자리를 떠나면서 음식 서비스했던 두 명의 요리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함께 한 내내 추기경의 미소는 주변을 환하게 비춰 주었다.

내 자신을 돌아본다. 학생들 가르칠 때 추기경처럼 환한 미소를 지은 적이 있었을까? 그분처럼 미소 지으며 가르쳤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 편했을까? 남들 대할 때도 그렇다. 저렇게 웃어 준다면 소통하기도 훨씬 쉬울 게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 봤다. 심각한 표정에 세월이 내려 앉았다. 칙칙하다. 애써 웃음 지어 보았다. 이렇게도 웃어보고 저렇게도 미소 지어 보았다. 생각만큼 밝아지지 않는다. 이리저리 표정 짓고 있는데 아내가 한마디 한다. "그만 좀 하세요. 얼굴에 주름살 생기겠네."

"당신이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독일의 신학자 칼 조세프 쿠셀의 말이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는 속담처럼 웃는 얼굴은 누구나 좋아한다. 누구나 좋아하는 웃음,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표정이지만 잘 지어지질 않는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미소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심리학에 '안면피드백假說'(Facial feedback hypothesis)이 있다.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피실험자들에게 볼펜을 한 그룹은 입술로 물게 하고 다른 그룹은 어금니로 물게 했다. 입술로 물면 찡그린 표정이 되고 어금니로 물면 웃는 표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에 같은 만화를 보여준 뒤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평가했다. 후자가 더 재미있게 보았다고 답했다. 억지로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감정 노동하는 분들께 웃는 얼굴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그래설까. 항공사나 백화점에서 안내하는 분들은 그럴듯하게 웃는다. 참다운 미소를 지으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릴 때, 악사와 광대를 불러 모델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고 한다.

사랑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아름답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질 게다. 아기를 들여다 보는 엄마처럼 환한 미소가 피어 날 게다. 미소 지으려면 사랑이 먼저다.

●손

어머니의 손은 남자인 내 손보다 훨씬 컸다. 손가락도 굵고 마디마디 옹이 졌다. 힘도 셌다. 서른 언저리에는 쌀가마를 들어 올린 적도 있었다고 수줍게 힘 자랑을 하셨다. 언제부터인가 퇴근하면 습관처럼 어머니 손을 잡아드렸다. 아흔 넘어 몸져 누워 계실 때 손을 잡아드리면 '나는 괜찮다'는 듯 내 손을 꼬~옥 쥐어 주셨는데 어머니의 힘이 세게 느껴지면 그날은 마음이 놓이곤 했다.

어머니는 손이 커서 콤플렉스가 있었을 게다. 키가 큰 것도 부끄러워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큰손은 내게 든든한 힘이었다. 그 손으로 밥 짓고, 그 손으로 삯바느질해서 자식들을 키워냈다. 어느 날 내 작은 손을 쥐고는 말하셨다. "공산당이 손을 보고 하얗고 매끈하면 잡아갔어."

캄보디아 킬링필드 유적지에서 들은 이야기도 그랬다. 안경 낀 사람은 모두 개혁 대상으로 몰아 처형했다고. 그때는 피식 웃었지만 훗날 극단적인 공산당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다. 손에는 저마다 살아 낸 흔적이 그대로 담겨있으니까.

손은 커뮤니케이션의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교통순경은 손신호로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고, 야구 심판은 '스트라이크', '세이프', '아웃' 과 같은 판정을 손신호로 알려준다. 청각장애인 들은 수화로 말을 주고받는다.

말을 대신할 만큼 손으로도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디오PD는 스튜디오 밖에서 스튜디오 안의 출연자와 표정과 손짓으로 교감한다. 드라마를 연출할 때는 손짓 만으로 세세한 주문을 전하기도 한다. 손바닥을 펴서 들어 보여 잠시 멈추게 하고, 손가락으로 특정 연기자를 가리켜 연기하게 한다.

손바닥을 위로 올려 소리를 점점 크게 내게 하고 손바닥을 아래로 눌러주며 소리를 낮추게 유도 한다. 손으로 빠르게 원을 그려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양손을 좌우로 당기는 동작으로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

같은 손동작이라도 문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리 오라'고 손으로 표현할 때 손바닥을 아래로 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의 의미가 다르다. 우리 식으로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하여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 '오라'는 표현이다. 하지만 독일 같은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오라'는 손 제스처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손바닥을 위로 하여 까딱인다. 우리에겐 아랫사람이나 강아지를 부르는 무례한 손짓이다.

손은 인사의 수단이기도 하다. 악수는 상대방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시에서 시작되었다. 악수는 직접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믿음과 평등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악수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인도에서는 양손으로 상대방의 양손을 잡는다. 일본에서는 손을 많이 흔들고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일반적으로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 상대의 눈을 보며 한다. 악수 스타일도 사람마다 다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있는 힘껏 손을 쥔 채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악수를 한다. 성격도 나타내고 마음도 드러낸다.

소록도 음성 나환자 촌에 취재차 간 적이 있다.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한센씨 환자분이 손을 뒤로 돌린 채 머뭇거렸다. 안내해 주던 분이 "괜찮아. 이분은"라고 하자 그제야 불편한 손을 수줍게 내밀었다. 첫 만남에서 으레 하는 악수를 그분들은 불편해한다. 손가락 몇 마디가 잘려나가 뭉텅해진 모습을 내보이는 게 민망하기도 하겠지만, 손을 내밀었다가 머뭇거린 상대에게서 무안을 당할까 염려하는지도 모르겠다. 상대방이 편하게 악수를 청하지 않도록 손을 뒤로 감추거나 뒷짐 지듯 한다. 쑥스러워하는 그분들이지만 막상 손을 잡으면 금방 얼굴이 환하게 핀다.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손을 감추고 있지는 않을까?

주변을 살펴보면 볼수록 잡아줘야 할 손이 의외로 많다. 때로는 내 손 또한 누군가 잡아주길 바란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잇는 것이다.

국내 최초의 「독도 생방송」 회고

천복용
(가술.이사)

◆1995년 3월 6일, 교양제작국 생활정보팀은 「신춘특집 아침만들기」에서 방송사상 최초로 SNG를 사용해 고성 통일전망대, 독도, 마라도, 지리산 천왕봉을 잇는 '5원 위성 생방송'을 시도해 개가를 올렸다. 또한 독도에서 처음으로 기자 리포팅을 생중계하는 기록도 세웠다. 당초의 기획은 '한반도의 동, 서, 남쪽 끝인 독도, 백령도, 마라도가 거론됐었지만 인원과 장비 배치, 방송 허가 등의 문제로 백령도가 빠지고 지리산 천왕봉과 고성 통일전망대가 추가되었다. 방송 날짜는 독도의 의미도 살릴 겸 삼일절로 잡았는데 SNG의 시험운용 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통신공사(KTA)의 요청으로 3월 6일로 연기되었다. 독도 생중계 과정을 되돌아 본다.

◆이번 특집은 방송으로는 '최초의 독도 생방송'이라는 의미를 갖는 일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본 NHK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 SNG위성 생방송'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그 해 7월에 쏘아 올릴 무궁화 위성이 디지털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KTA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SNG 대신 디지털 SNG를 확보해야 했는데 당시 디지털 시스템을 채택한 SNG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일본의 NEC사와 미국의 Scientific Atlanta사 뿐이었다. KTA에서는 가능하면 일본 장비를 배제하려고 고심했지만 비용과 기술 이전의 문제까지 고려한 결과 아쉽지만 일본의 NEC사 제품으로 결정했다. 한국통신이 위성이동중계기(Satellite News Gathering) 3대를 들여왔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안택호 PD는 즉시 한국통신에 전화를 걸어 〈생방송 아침 만들기〉에서 독도에 들어가 한국통신 SNG장비를 이용해 한국 최초로 위성 생방송을 하면 SNG 장비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SNG장비를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한국통신에 제안했다. 그리고 독도에 들어가는 uplink 위성안테나에 한국통신 로고를 붙이는 아이디어도 가르쳐 줬다. 이 제안에 한국통신도 흔쾌히 동의했다. 다만 일본에서 파견된 기술자를 독도에는 데려가지 않고 순수한 한국 기술진만으로 SNG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SNG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다. 독도는 해안에서 215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기존의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방식으로는 생방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직진성을 가진 전파는 평탄한 곳이라 하더라도 100킬로미터 거리 이상의 중계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직경 1.2미터의 위성 안테나와 무게 300킬로그램의 개인 책상 정도의 부속장비 만으로 태평양 상공의 인텔새트 7호를 통해 독도의 생생한 모습을 전국에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저 놀랍기만 했다.

◆독도로 가는 길은 헬기와 배편 두 가지가 있는데 배편은 울릉도에서 어선을 전세내어 7시간 정도의 뱃길인데 해경 경비정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해상수송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헬기를 선택해야 했다. 21명의 인원과 1.5톤의 장비를 헬기로 독도까지 나르는데 처음에는 2월 27일부터 하루에 두 차례씩 운항계획을 잡아 3월 1일까지는 인원과 장비가 전부 독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독도 현장에서의 숙식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전촬영을 위한 제작팀만 선발대로 먼저 입도하고 중계부 엔지니어들과 카메라맨들은 강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생방송 이틀 전에 헬기로 독도에 입도할 예정이었는데 영동지방의 폭설과 동해상의 폭풍 때문에 SNG 장비와 중계팀이 강릉에서 사흘 동안 발이 묶이고 말았다. 방송 일자는 다가오는데 하늘은 도와주지 않아 초초한 마음으로 사흘 내내 전화기 옆에 앉아 출발신호만을 기다라고 있었다. 결국 3월 3일에 기존의 수송계획을 포기하고 기본 장비와 최소한의 인원 만이라도 서둘러 보내고 나머지 방송팀과 KTA 직원 네 명은 서울로 돌려 보내야 했다.

◆독도의 날씨는 정말 예측 불허였다. 8일 동안 폭풍주의보가 두 번 발효되었고 눈이 세 번, 바람은 거의 매일 불었다. 화창한 날이라곤 2월 27일과 방송 당일뿐이었다. 독도의 바람은 동도와 서도 사이 100여m의 가까운 바닷길도 막았다. 독도의 바람이 얼마나 강했으면 "화장실에 갈 때는 반드시 무거운 돌을 들고 가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아닌 게 아니라 바람이 심할 때면 화장실에서 정조준하는 일조차 힘들었다.

◆총 방송시간 80분 중 독도에서 소화해야 할 시간은 20분 이상이었는데 단 일주일 촬영 만으로 그 시간을 메꾸는 일이 쉽지 않아 제작진은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방송팀은 독도 경비대의 내무반과 빈 창고를 얻어 지내고 있었는데 내무반 침상에는 경비대원들의 애인 사진이 드문드문 걸려 있었다. 안택호 PD는 여기서 소재를 찾아냈다. 경비대원들과 그들의 가족이나 애인과의 영상통화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집방송 중 가장 재미있었다는 평을 들었던 'SNG를 통한 경비대원과 애인, 어머니와의 만남'은 이렇게 현장에서 탄생한 아이디어였다. 당시 '애인이 서울에 거주해야만 출연이 가능하다'고 하자 어떤 대원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애인에게 '즉시 서울로 가라'고 전화를 하는가 하면, 방송에 출연할 대원들에게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친구나 애인 사이인데 방송에 공개되면 서로 부담이 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방송은 방송이고 결혼은 결혼이다"라고 말했다. 생각해보니 이런 신세대 감각이 방송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 싶다.

◆3월 5일, 오후까지만 해도 바람이 없이 잠잠했지만 밤이 되고 방송이 임박했을 때는 바람도 거세지고 앞바다에는 거센 풍랑도 일어 오징어 잡이 배가 풍랑에 흔들리는 모습도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었다. 〈뉴스 데스크〉 시작 10분 전. SNG장비를 통한 간단한 비디오와 오디오 크로스 체크를 한 뒤 오후 9시 정각에 한국령韓國領이라고 쓰인 바위 앞에서 유재용 기자가 거셈 밤바람을 무릅쓰고 독도의 생생한 모습을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전국에 생방송할 때 독도 SNG 방송센터(말이 좋아 방송센터지 사실은 경비대의 비상식량 창고였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전쟁터였다. 유재용 기자와 이호인 기자는 독도 도착 4시간 만에 두 꼭지를 준비하느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택호 PD는 '기왕이면 좋은 그림으로 편집해줘야 한다'며 ON-AIR 30초 전까지 자료 편집을 만지작거려서 중계팀은 '과연 제대로 된 화면을 보낼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을 졸였다. 결과적으로 「뉴스데스크」와 「뉴스와이드」 그리고 특집방송까지 모두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여러 부문에서 모인 각 팀원들이 독도 방송을 위해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열심히 뛰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화면 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고는 한 번 있었다. 특집방송 다 끝내고 마지막 클로징을 남겨 놓았을 때 태양흑점활동 때문에 SNG-Return파가 끊어진 것이었다. 갑자기 현장 모니터가 꺼지면서 화면에는 NO Signal이란 문자가 나타났다. 순간 여기저기서 비명과 고함이 터졌고 당황한 중계팀은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KTA SNG팀의 얼굴도 사색이 됐다. PTS 라인도 끊어지고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단 한 대뿐인 경비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번번히 불통되거나 중간에 끊어졌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다시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갑자기 이어폰에서 "큐, 큐"란 소리가 들렸다. 중계 모니터 화면은 먹통이었지만 스태프들의 표정과 몸짓 덕분에 얼떨결에 변창립 아나운서가 클로징 멘트를 제대로 하고 나니 모든 스태프들이 큰 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탈진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다.

◆생방송 「신춘특집 아침만들기」를 방송하기 위해 고생한 고성팀, 진주문화방송 천왕봉팀, 제주문화방송 마라도팀, 독도의 다양한 정보와 귀한 수중촬영, 항공촬영 자료화면을 협조해 주신 포항MBC 관계자 여러분, 특히 다큐멘터리 〈독도의 사계〉를 제작했던 김욱한 PD에게 방송팀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특별 기고

카타르월드컵을 통해 재확인한 MBC의 저력

김상민
(MBC 스포츠 기획사업팀)

최초의 겨울 월드컵으로 치러진 '2022 카타르월드컵'은 아르헨티나의 통산 3번째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월드컵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 풍부한 볼거리와 알찬 경기 내용으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은 대회였다. 역사상 최초로 모든 대륙에서 16강 진출 팀을 배출했고 우리나라 또한 극적으로 16강에 오르며 세계 축구의 평준화 양상이라는 추세에 발맞췄다.

이번 월드컵 대회를 통해 국가적으로 대표팀의 '16강 목표 달성'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면, 중계방송 차원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청률 경쟁이 많은 화제를 낳았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전체 시청률에서 강세를 나타냈던 KBS는 이영표 씨 대신 구자철 씨를 해설위원으로 선정했고, SBS는 지난 대회의 배성재-박지성 조합에 현역 선수인 이승우 씨를 더해 '3인 체제'로 방송했다. 지난 대회 시청률에서 1위를 차지했던 MBC는 기존 해설자인 안정환, 서형욱 씨를 유지한 채 캐스터를 김성주 씨로 바꾸는 승부수를 던졌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찰떡궁합을 보인 김성주-안정환 조합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MBC가 시청률 경쟁의 최종 승자로 자리매김하는 최고의 한 수가 되었다. 대회 개막 이후 경기가 거듭될수록 MBC의 시청률은 상승세를 보이며 타 사와의 격차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 중계에서는 KBS와 SBS의 시청률을 합한 수치보다 MBC의 시청률이 더 높은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 과거 1998, 2002, 2006 월드컵에서 MBC가 타 사와의 경쟁에서 완승하며 '월드컵은 MBC'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던 그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다.

카타르월드컵 시청률 경쟁에서 MBC가 대승하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차적 요인은 '김성주-안정환' 조합의 힘이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편안한 중계를 이끌면서도 그 속에 축구를 읽는 흐름 및 전문성을 녹여냈다는 평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중계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포츠국 제작진의 노력이다. 중계진이 방송 내외적으로 보여준 재미있는 말과 행동을 '안정환의 말말말', '카타르 언타이틀'과 같은 작은 코너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노출 시켰는데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중계방송의 시청률 상승 및 유튜브 조회수 증가, 화제성 상승 등으로 이어졌고 MBC의 월드컵 중계 방송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사실 이번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MBC 스포츠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의 자막 관련 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이후 2022 베이징 올림픽까지 시청률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전환시킬 '그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스포츠국은 비상한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 대회를 준비했다. 사전 홍보를 겸해 대회 개막 이전부터 유튜브 콘텐츠를 준비했고,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해당 국가와 그 국가에 걸맞는 노래를 같이 소개할 수 있는 코너인 '배철수의 축구캠프'같은 아이템도 준비했다. 월드컵 기간 중 방송 3사 중 유일하게 당일 벌어질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는 프리뷰쇼 '카타르시스'와 같은 프로그램도 제작하며 타 사의 월드컵 방송과 비교해 양적, 질적 차별을 두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청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사로잡았고 결과적으로 'MBC 스포츠'의 브랜드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2022 카타르월드컵' 방송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를 잘 이겨낼 수 있고 여전히 저력이 있는 MBC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번 한 번의 성공만으로 축배를 들기에는 현재의 방송 여건, 특히 스포츠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다가올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MBC는 충분히 '좋은 방송'을 할 수 있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스포츠의 명가' MBC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www.fbc.or.kr

MBC와 늘 함께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품격있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서
MBC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최고의
공영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진흥, 학술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